

# SPACE21 2단계 추진 사업단 신설 경희대·경희학원 노조 반발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최명규 기자 gymyeong@khu.ac.kr

지난 15일 신설된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2단계 사업추진단)'을 두고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정책원이 지난 17일 2단계 사업추진단 설립을 공표하고, 관련 직원 인사발령을 요구한지 1주일 만에 경희대 노동조합(경희대 노조)은 2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린아이가 '쌓고 부숴 버리는' 레고 놀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경희학원 노조) 또한 "정치적이고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며 "SPACE21 사업이 추진돼 왔던 지난 12년 동안 늘 그래왔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다"고 밝혔다.

경희대 노조는 "우리대학은 지난 2월 28일 SPACE21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SPACE21 건설 사업단을 관리팀으로 통합했다"며 "무리하게 조직을 통합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이 기존 SPACE21 사업 조직을 복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단계 사업추진단 설립 과정에 협의가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노조는 "거버넌스 관련 변경 사항은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도록 정해놓았음에도 이번 추진단 복원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은 조직 복원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 정민섭 팀장은 "이미 마무리된 1단계 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방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SPACE21 건설 사업단과 2단계 사업추진단은 별개의 조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팀장은 "SPACE21 사업과 관련된 조직은 임시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며 "임시조직을 만드는 데까지 노조의 전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노조와 타협을 위해 논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노조 모두는 사업추진단장 아래 MA(Master Architect), MA 아래 다시 대표건축가가 위치해 있는 2단계 사업추진단 조직 위계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며 비판했다. 경희대 노조는 "대표건축

가-MA-추진단장'으로 이어지는 옥상옥 같은 조직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사업추진단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만 하는 직책이다. 사업추진단장이 실행업무를 총괄하는 MA와 대표건축가를 장악할 수 있는지, 나아가 추진단장이 주어진 업무를 어떤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희학원 노조 박경규 지부장 또한 "그동안 구성원들의 비판을 한 대 받은 책임부총장 제처럼 더 심한 옥상옥구조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이번 사안은 미비할 정도"라며 "옥상옥 직위부터 옥상옥 부서까지 그간 우리학교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조직구조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 노조, 사업단 조직 구조도 '옥상옥'이라 비판

이외에도 대표건축가라는 직책에 대해서 한 건축학과 교수는 "시중 건축업계에서 MA와 대표건축가는 보통 공존하기 힘들다"며 "MA는 총괄건축가, 책임건축가 정도로 번역된다. MA와 대표건축가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래정책원은 "MA와 대표건축가는 행정조직 밖에서 외부 자문을 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업추진 단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장은 행정조직의 수반으로서 단장의 결제를 받지 못한 행정행위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단계 사업추진단 신설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학교 내 조직의 존폐가 한없이 가벼운 의사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던 문제도 지적됐다. 경희학원 노조 박경규 지부장은 "지난 12년 동안 수없이 신설되고 폐지됐던 SPACE21 관련 부서들은 줄속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조직이 생색내기과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희대 노조 또한 "조직의 폐지와 신설은 그 명칭과 서류내용, 형식적 풍부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솔하게 만들어졌던 조직의 끝을 보면 우려가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기채 500억 내년부터 본격 상환

(SPACE21 1단계 사업)

최명규 기자 gymyeong@khu.ac.kr

지난 SPACE21 1단계 사업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조달됐던 기채의 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PACE21 1단계 사업비로 마련됐던 기채의 상환은 오는 2019년부터 본격화된다. 2019년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17년간 매년 30~40억 원 가량을 상환해야한다.

의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직원 A 씨는 "재정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SPACE21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빚을 졌다"며 "SPACE21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지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SPACE21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재정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지난 SPACE21 1단계 사업 예산이 기채(起債)를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SPACE21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15년 당시 대학본부는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로 총 1,750억 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건설비용 약 225억 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밖의 사업비는 기금과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통해 얻은 94억 원 외에 기채를 통해 500억 원을 확보하고, 이후 추가 운영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2017학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016년 모두 360억 원의 기채를 하나은행에게 발행했다. 이어 2017년은 14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함에 따라 우리학교가 SPACE21 1단계 사업예산으로 마련한 기채



는 모두 500억 원이다. 기채발행으로 우리학교의 2017년도 기준 단기·장기 차입금은 2015년과 비교하여 168% 증가했다. 2015년 296억 8,000만 원이던 차입금은 SPACE21 1단계 사업예산을 위해 기채 500억 원을 발행하면서 2017년 796억 8,000만 원이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사립대학 평균을 3배 이상 웃돌았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대학알리미의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0.9%로 사립대학 평균 부채비율 3.3%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8곳 중 중앙대(12.2%)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6년 우리학교 부채비율이 4.3%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1년 새 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 2015년 열린 'SPACE21 사업 소통

위원회'에서 우리학교는 의약품 관련 사업이나 경제계약, 교육 사업으로 연간 상환금액 4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에는 KMC 사업 및 비학위과정 등 활성화로 수익을 창출해 기채상환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이 지난 15일 설립되면서 SPACE21 2단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신공공사와 리모델링을 주축으로 미래과학관·글로벌타워 건립, 정경대학교와 외국어대학의 리모델링 등 캠퍼스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재정예산처는 "값이아가야 할 기채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다"며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최대한 기채 발행을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채 : 일정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차입금 :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는 "총장 직속으로"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 하며 전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 사항은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 조직 및 인력 확충, 사안 조사·처리과정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가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돼야 함을 언급하며, 상담과 조

사를 위한 정규직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함을 담았다. 또 상담과 조사 인력은 별도로 구성돼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기존 내부자 위주의 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학생위원 등 외부인원 참여와 균등한 성별 구성을 권고했다. 해외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차용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법령개정, 예산 확충,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학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를 위해 학생 참여 허

용 및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은 수사단계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와 함께 대학 내 성폭력 담당센터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반대 등 4년제 대학 193개교, 전문대 136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태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 부정청탁신고센터 홈페이지 오픈 안내(http://clean.khu.ac.kr/)

경희대학교 부정청탁신고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운영을 위하여 감사행정원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원회 소집 및 제반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여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내용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탁금지법의 대학 내 안정적 정착을 통해 교직원의 직무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교육 및 자료 제공  
연 1회 이상 온라인 법정 교육 제공,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제공 및 사례 검색 지원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접수  
'Q&A' 메뉴를 통해 1:1 청탁금지법 문의 가능
- \*부정청탁 관련 신고 접수

부정청탁

수수금지금품

초과사례금신고(외부강의등 관련)

신고인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누구나 가능 (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  
 신고대상 : 경희대학교 소속 교직원  
 신고방법 : 부정청탁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 신고처리상태 메뉴에서 확인  
 ※ 외부강의등 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경희대학교 부정청탁신고센터**

##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8.05.14(월)	본교 홈페이지 인사안내 게시판에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간: 2018.05.28(월) 17:00 까지 확정기간: 2018.06.01(금)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8.06.14(목) 10:30~06.15(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배강공고	2018.06.20(수) 12:00 (1차) 2018.06.21(목) 09:00 (2차)	본교 홈페이지 인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8.06.18(월)~06.20(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배강과목 수강생)	2018.06.21(목) 09:00~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2차 배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8.06.22(금)~2018.07.13(금)	
성적입력일	2018.07.13(금)~07.16(월)	
성적발령일	2018.07.13(금)~07.16(월)	
성적정정일	2018.07.17(화)~07.18(수) 15:00까지	

**2.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온라인 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3학점		2교시	09:00~11:45	
	1교시	10:00~11:50	3학점		2교시	13:00~15:45	

**3.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나. 1차 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다.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발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라.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후 조회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68,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징학 →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다. 입학사정: 학년 2018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8.06.21(목) 17:00	전액 환불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8.06.22(금)~06.28(목) 17:00	수강료의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8.06.29(금)~07.03(화)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수강 취소 불가)	

**수강취소방법**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  
 ※ 배강과목 수강지 포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사) 20명 이상  
 나. 전공간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문의  
 다.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라. 8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신청 불가(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배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요약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정문관 2층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